

“무더운 집 탈출”
심야 카페·공원 복직

“태양을 피하자”
바다 대신 계곡으로

“밥하기 귀찮아”
식당·배달업체 인기

전기료 걱정엔 온가족 거실 생활 술 자제하고 무기력증 잇단 호소

“도망치고 싶었던 여름이었어요. 내년 여름이 더 걱정됩니다.”

올 여름 사람들은 심야 시간 열대야를 피해 카페와 공원을 찾고, 재래시장 대신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서 피서 겸 쇼핑을 즐겼다. 사무실에는 점심 시간마다 배달 사원들이 북적였다. 전기료를 걱정하던 ‘엄마’들도 결국은 에어컨 리모컨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

자극 같았던 2016년 폭염은 사람들의 생활상까지 바꿨다. 일부에서는 “폭염 트라우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7~8월 더위’가 공포로 다가왔고,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을 탓하는 이들도 있었다.

송법석(33·광주시 북구 양산동)씨는 밤마다 열대야를 피해 양산동호수공원을 찾았다. 송씨는 “낮에 너무 에어컨 앞에서 생활해 냉방병이 걱정됐다”며 “아내와 밤 시간 만이라도 공원에서 바람을 쐬면서 여름을 보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서구 운천호수공원, 일곡 근린공원, 광산구 쌍암공원 등 공원과 대학 캠퍼스는 송씨와 같이 가족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인파로 북적였다. 젊은이들은



재래시장 대신 대형마트로

장사 망친 해수욕장 울상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즐기기도 했다.

젊은이들이 무더운 여름밤을 피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로 꼽은 곳은 카페였다. 시원한 음료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이고 쾌적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밤 10시면 문은 닫던 카페도 ‘폭염 특수’를 누리기 위해 자정 이후까지 연장 영업을 하기도 했다.

올해 최고의 피서지는 계곡이었다. 뜨거운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는 해수욕장을 피해 시원한 그늘이 기다리고 있는 계곡을 찾은 것이다.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어진 여름 성수기 구레수락폭포는 밀려드는 인파로 돗자리를 펼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반면 전남 해

수욕장에서는 줄어든 피서객 때문에 상인들이 울상을 지었다.

폭염은 전기료 걱정도 잊게 했다. 한 달 가량 이어진 열대야로 집집이 참고 있던 에어컨 버튼을 눌렀고, 전기를 아끼기 위해 온 가족이 거실이나 안방에서 잠을 청했다.

동료와 삼계탕, 백숙 등을 찾아다니던 여름 점심 문화는 옛말이 됐다. 반면 배달 음식점은 호황을 누렸다. 사무실에서 짜장면 등과 같은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무기력증과 폭염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넘쳐났다.

업무 특성상 오후 시간 내내 광주 곳곳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직장인 박모(34)씨는 “자동차 에어컨을 켜도 시원하지 않고, 이동할 때마다 숨막히는 더위에 짜증부터 났다”며 “더위를 피해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직장인 최모(40)씨는 “아침마다 출근하는 게 짜증날 정도로 무기력증이 계속됐다”며 “저녁마다 즐기던 술도 마시지 않는 여름이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kmi@kwangju.co.kr



등반객 헬기 구조훈련 25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와 국립공원 구조대, 항공구조구급대가 합동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중봉 인근에서 탐방객이 탈진한 상황을 가정해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피해자 545명 광주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뒤엔

돈에 눈먼 공인중개사·브로커 있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각각 545명, 380억원에 이르는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사건의 뒤에는 법정 수수료를 2~3배 웃도는 알선료를 노리고 직업 윤리를 저버린 100여명의 공인중개사와 브로커가 있었다.

광주서부경찰은 25일 오피스텔을 중복분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대상 사기)로 박모(57)씨 등 100여명에게 징역 4년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기 분양을 알선한 혐의(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공인중개사 등 브로커 1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혐의 확인이 끝난 3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 등은 2012년 3월 서구 농성동에 신축한 482세대 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지난 5월까지 계약해지·미분양 물량을 545명에게 중복분양해 38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준공 전에는 피분양자들이 중복계약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22㎡ 규모 1가구당 7000만~8000만원에 거

래되던 오피스텔을 4000만~5000만원으로 할인해 피해자들을 끌어 모았다. 회사 소유분인 만큼 신축사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나 임직원 계좌 입금 또는 현금거래를 유도했다.

부동산 경매감사 원모(57)씨 등 브로커들은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해당 오피스텔 규모의 법정 수수료(알선료)가 100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2~3배 많았던 것으로, 바로 이것이 브로커 및 공인중개사들의 활동을 부추겨 피해를 키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분양사기단이 감춰둔 80억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내 동결시키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경남 거제서 2번째 콜레라 환자

감염원 해산물·해수 추정... 집단감염 가능성은 낮아

경남 거제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광주 거주 50대 남성이 22일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5일 경남 거제에서 콜레라 환자가 추가로 나왔다.

15년 만에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잇따르자 보건당국은 대책반을 긴급 편성하고 전국 의료기관에 의심 증상(복통 없는 묽은 설사)을 보이는 모든 환자에 대해 콜레라 검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5일 거제에 거주하는 여성 A(73)씨가 설사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콜레라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지인이 거제 인근 해안에서 잡아 냉동한 삼치를 다음날인 14일 해동해 먹었고 15일 오전부터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지난 22일 뒤늦게 콜레

라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거주 50대 남성처럼 이 여성도 거제 지역 수산물을 섭취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2명의 환자가 개별적으로 콜레라균에 감염된 만큼 집단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콜레라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이를 관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콜레라 감염원으로는 거제지역 수산물 내지 바닷물이 추정되지만 당국은 정확한 감염경로 확인을 위해선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폭염과 콜레라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바닷물 온도에 따라 콜레라균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우리나라 바닷물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결별 선언에 6년간 집요한 폭력



○~사귀던 여성이 결별을 선언하자 이를 받아들이는커녕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검찰에 의해 철장행.

○~25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전승수)에 따르면 김모(42)씨는 여성 A(46)씨와 지난 2011년부터 이달 초까지 6년간 사귀어오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

○~김씨는 검찰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뒷길에 우발적으로 한 두 차례 폭력을 휘둘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조사를 거쳐 “김씨가 피해여성에게 데이트 폭력을 건디지 못하고 결별을 요구할 때마다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집요하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그를 특수협박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완도 8월 강수량 ‘0mm’... 전남도, 가뭄 대책 15억 긴급 투입

폭염과 가뭄 탓에 농작물이 바삭바삭 타들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가뭄대책으로 예비비 15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관심(평년 저수율 대비 71% 이상) 단계인 전남의 가뭄 수준은 26일째 주의(70% 이하) 단계로 격상될 전망이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8월 광주·전남의 평균 강수량은 10mm로, 평년(172.7mm)의 5.8% 수준에 그쳤다.

특히 완도지역에는 이달 들어 비가 한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진도(0.1mm), 흑산도(0.1mm), 여수(0.2mm), 해남(0.4mm), 강진(0.5mm) 등은 강우량이 채 1mm

를 넘지 못했다. 목포(1.3mm), 보성(7.6mm), 광양(8.5mm), 고흥(11.4mm)지역은 10mm 안팎의 짙음 비만 내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예비비 15억원을 신안, 해남, 장흥, 영광 등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시·군의 건의에 따라 배정되며 양수장 설치, 하천 굴착, 양수기 유류대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가뭄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도서로 이루어진 신안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예비비 긴급 투입은 이낙연 전남지사 특별지시로 이뤄졌다. 전남도는 정

부에 가뭄대책비 80억원 지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다. 가뭄은 모두 4단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평년 저수율 대비 60% 이하이면 경계, 전국적으로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평년 저수율 대비 50% 아래로 떨어지면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 24일 전남의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 대비 72% 수준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온에 가뭄이 지속되면서 일부 논과 밭에서 물마름 현상이 증가중에 있으며, 발작물 일부에서는 고사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 20년경력 조역사 010-6211-4585
경,공매 NPL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상가] 광주 남구 월산동 동가오피스빌 1층 건물 476㎡ 대로변 전시장 판매장 공용매장추천 감정이 15억 ▶ 최저가 15억
- ★ [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키아라운지 상가 483㎡ 카페, 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정이 8억7천7백 ▶ 최저가 6억1천3백
- ★ [상가]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인근 대로변 2층상가 토지 735㎡ 건물 449㎡ 감정이 11억8천7백 ▶ 최저가 8억3천1백
- ★ [공장] 광주 광산구 안창동 공장 대지 5,940㎡ 건물 5,872㎡ 감정이 57억6천7백 ▶ 최저가 20억6천7백(36%) 기아차공장인근
- ★ [상가]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정이 21억3천2백 ▶ 최저가 11억9천4백(56%)
- ★ [토지] 광주 광산구 월전동 대지330㎡ 평동산단 임플부지 교통편리 코너위치 감정이 1억6천4백 ▶ 최저가 1억6천4백 투자추천
- ★ [상가] 영암군 시종면 민수리 3층상가 대지 691㎡ 건물 1008㎡ 감정이 8억8천3백 ▶ 최저가 3억1천6백 (36%) 투자추천
- ★ [공장]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석곡농공단지 대지 4,753㎡ 건물 2,619㎡ 감정이 7억8천3백 ▶ 최저가 2억8천 (36%) 투자추천

투자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은 ▶ 매매 55억원
- ★ [무인텔] 광주 북구 용두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 위치좋은 ▶ 매매 20억원
- ★ [상가]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8백만원 ▶ 매매가 17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상가]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월18억 ▶ 매매 48억
- ★ [토지] 주월동 EGD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 매매13억원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 매매 50억 (요양병원허가취득)
-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지원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70% 용적250% 급매가 4억4천 (급매, 조정무)

수익형 추천

-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방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60㎡ 대로변 내외부깨끗 매매 4억 (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수 다수 직영추천
-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5세대 안진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곡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한라산 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자산동 대지 28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스킨룸6개 (용4억5천모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역 매매13억5천
-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상가] 목포시 연산동 롯데수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대단위 아파트단지 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